

우리나라 고대사 揆園史話 ㉘

(규원사화) **■ 一沙權正孝**
(한국인재개발원 회장·애국운동연합고문 울진)



나무는 관북 지방에 심으면 휘어지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함흥의 배와 함종의 밤을 한산(漢山)으로 옮겨 심으면 맛이 변한다. 또한 성벽 위의 고사리는 그 잎이 집의 처마를 덮고, 시렁 위의 쥐는 그 몸이 소 등 보다 높게 있으며, 축이 삼밭 속에서 자라면 북돋우지 않아도 스스로 곧게 올라가고, 칩이 소나무 밭에서 나면 천길

(지나호에 이어) 夫天之於物，不能無厚薄，即其地而觀之，則此物莫不同浴天之恩，分其地而言(則之) [之，則] 兆物之得地之，肥瘠寒暖，高下陋，莫不有(若) [差]。是以物異南北，人殊東西，其盛衰榮枯，茂殘繁沒之勢，不可以人力而左右之也，何以知其然耶? 夫耽羅之橘，北渡則爲枳，于山之桃，越海則實矮，湖南之竹，嶺南之，植之 [北關] (關北)，于而不成，咸興之梨 咸從之栗，移之于漢山而味，且夫城上之蕨，葉掩屋，菓上之鼠，高於牛背，蓬生麻中而不扶自直，莠出松田而直聳千尋，至如渡淮之橘，周原之董(荼) []，莫不如是，此皆，物之因於得地之肥瘠寒暖 高下 之適與不適 幸與不幸，而其稟得也各殊也。

무릇 하늘이 사물에 대해서는 두텁고 얇음이 없을 수 없으나, 땅을 살펴보면 골역조 만들 가운데 어진 하늘의 은혜를 입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땅을 나누어 말하자면 곧 만물이 얻어 가지는 땅에는 비옥하고 메마르고 촉촉과 따뜻하며 높고 낮고 광활하고 좁음의 차이가 있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사물은 남북으로 다르고 사람은 동서로 틀리니, 그 영고성쇠(榮古盛衰)와 무진번몰(茂殘繁沒)의 형세는 인력으로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어찌 그리림을 아는가? 대저 탐라 땅의 굴이 북으로 건너가면 탕자가 되고, 우산(于山)의 복숭아가 바다를 건너오면 열매가 작아지며, 호남의 대나무와 영남의 감

도회(渡淮)의 귤과 주원(周原)의 바구니나 씀바귀도 이와 같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모든 것은 사물이 얻어 가지는 땅의 비옥하고 메마르며 촉촉과 따뜻하며 높고 낮고 광활하고 좁은 것 등이 그 사물에 적합한지 아니한지 혹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등에 연유하는 것이기에 그 얻어지는 바탕이 각기 틀리게 되는 것이다.

昔者，之地，勁寒而不宜五穀，民皆帶劔佩弓，并事遊獵，其民之生也，艱險險，健勁悍，長於武風而不(閑) [聞] 文事。藍侯之地，廣(活) [] 平蕪，并施耕牧，兼習戎事，其民 兼剛柔，并文武，恒爲東國進攻之前驅。靑丘之地，風氣溫美，五穀豐登，民皆，衣輕暖而食肥美，(頗) 有冠帶衣履，天下之概，而卒溺於華靡之弊。且夫雍州之地，土厚水深，山岳莊，樹固密，風氣勁，則秦人匠之，其俗悍然，有招八州而朝

同列之氣，迫近戎狄，修習戰備，競事騎獵，高(尙) [上] 氣力，於是猛將悍卒，轟出 [乎] 其間，乃延敵列國，追亡逐北，因利乘(使) [便]，宰割天下，終至始皇之世，振長策而馭宇內，吞二周而亡諸侯，制六合而鞭笞天下。南郡百越，北逐匈奴，胡人(敢)不 [不敢] 南下而牧，馬士不敢彎弓而報怨。

옛날 속진()의 땅은 매우 추워 옥을 심기에 적당치 않아서 백성들이 모두 길을 차고 활을 메고 어울려 일하며 사냥을 하니, 그 백성의 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검소하며, 거칠고도 매우 굳세어 무사의 기풍이 빼어났으나 학문을 닦는 일은 소홀히 하였다. 남후(藍侯)의 땅은 광활하고 너른 벌판으로 경작과 목축을 아울러 베풀고 무술도 함께 익히니, 그 백성들은 굳셈과 부드러움을 겸비하고 문무를 아울러 갖추게 되어, 우리나라가 공격하여 나아갈 때는 항상 선구가 되었다. 청구(靑丘)의 땅은 바람의 기운이 온화하여 오곡이 풍성하니, 그 백성들은 모두 가법고도 따뜻한 옷을 입고,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가을 쓰고 띠를 두르고, 옷을 갖춰 입고 신을 갖춰 신는 등 자못 천하의 풍치가 있었으나, 마침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폐단에 빠졌다.

또한 응주(雍州)의 땅은 흙이 두텁고 물이 깊으며 산악은 거칠고 장엄함에 속속들이 울창하고 바람 기운 또한 매우 사나우니, 진나라 사람들이 그 곳에 거처하면서 풍속이 군세어지고, 여덟 주(州)의 제후들을 불러들여 같은 벌판에서 조문을 받는 기상이 있었다. 응적(成狄)과 근접해 있으면서 전쟁에 대비하여 닦고 익히며 활 쏘고 사냥하는 것으로 기력을 높이니, 용맹한 장군과 굳센 군졸이 그 곳에서 배출되게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니 아들들은 모두 참석하라는 전갈이 왔다. 정안대군이 말을 타고 궁궐로 들어갔으나 이무렵 대궐의 대문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음으로 이상히 여기고 다른 대군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궁궐 서쪽 문으로 빠져 나오니 그곳에는 이미 민무구, 민무질, 조영무, 신극례, 이거이 등과 이숙번이 완전장장을 하고 군사들을 대기시키고 있었다. 차제에 정도전 일파를 없애 버리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정도전이 그의 집집에 있다는 것을 사전에 탐지하고 그 집으로 포위하여 이숙번 군사들이 불을 질렀다. 이때에 그곳에 있던 정도전, 남은은 도망가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심효생은 그곳에서 살해되었다. 도피한 정도전은 그 이튿날 시는 민무질에서 붙잡혔는데 손에 작은 칼을 든채 군사들에게 군사들에게 끌려 나갔다.

정안대군은 그에게 '무엇이 부족하여 우리 형제들을 죽이려 했느냐'고 묻자 '살려주세요' 하고 간청했으나 정안대군은 목베어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정도전에게는 아들 4명이 있었는데 1명은 자살하고 3명은 죽임을 당했다. 남은은 등도 죽었다.

여세를 몰아 이때에 방원은 18세의 나이로 죽임을 당하고 방식은 유배를 보내는 길목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때의 나이는 17세였다. 방식 의안대군의 무덤은 하남시에서 광주시로 넘어가는 남한산성 밑 은근개 계곡에 묘소가 있는데 풍문에 풀이 잘 자라지 않고 있으며 49년 국도변에 '의안대군 묘소 가는 길' 안내판만 조그만하게 표시되어 있다.

태조 이상계는 조선왕조 개국공신이었던 정도전, 남은 등이 죽었고 방원, 방식 두 아들이 죽었으니 그 슬픔은 극에 달했다. 태조는 정안대군에게 '너는 천문도 모르는 놀이다. 내사 살아있는 한 너에게 왕위를 절대로 물려줄 수 없다'고 말하고 그는 둘째 아들 영안대군(방곡)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한양을 뒤로하고 '함흥차사'의 일화를 남긴 함흥으로 떠났다. 영안대군(방곡)은 왕위에 올랐고 태조는 상왕이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임란 직후 왜군에 조선 관군이 힘없이 무너지자 경상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의병운봉'이 일어난다. 왜군의 주력부대가 북상중이던 경상도 지역은 함도방위를 목적으로 객재우郭再祐·김면金面·정인홍鄭仁弘 등이 의병을 일으켰고, 왜적의 직접적인 침략을 받지 않던 전라도 지역은 국가방위를 목표로 김원길·고경명 등이 거병했다.

김전일金千鎰, 1537-1593은 임금이 조선 수도인 서울을 떠나 서행하고, 5월 2일 서울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직후 고경명과 박광오, 전 정랑 정심鄭審(나주), 전 군수 최경회崔慶會(화순)에게 편지를 보내함께 의병을 일으키라고 했다. [건재집]

(다음호에 계속)

임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3월23일 현재)			
■ 총재대환비 △권혁승(상임부총재) 100만원 △권태호(부총재) 100만원 △권경섭(부총재) 100만원 △권태석(부총재) 100만원 △권세목(부총재) 50만원 △권속동(부총재) 50만원 △권영훈(감사) 2014미납분 20만원 소 계 520만원	△권보근(김포 대총원) 20만원 △권영빈(서울 대총원) 20만원 소 계 120만원	■ 대의위원회 △권오섭(영주 검교공파) 10만원 △권대현(부산 추밀공파) 10만원 △권철춘(문경 부정공파) 10만원 △권석호(합천 북야공파) 10만원 △권오익(안동 대총원) 10만원 △권중학(안동 부호장공파) 10만원 △권임호(부산 북야공파) 10만원 △권영방(안양 대총원) 10만원 △권대경(서울 북야공파) 10만원 △권영도(영천 부정공파) 10만원	△권호량(예천 대총원) 10만원 △권상택(광주 추밀공파) 10만원 △권희량(연천) 10만원 △권용수(대전 추밀공파) 10만원 △권영덕(안동 동정공파) 10만원 △권용모(서울 대총원) 10만원 소 계 160만원
합 계 800만원			

※ 3월14일 농협으로 권용준 명의로 20만원 송금하신 분 3월16일 국민은행으로 권재복 명의로 20만원 송금하신 분은 즉시 대종원으로 연락하여 소속과 직위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속박을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 사람들은 속박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자꾸 세상이 거처적거려다 생각한다. 그러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귀찮고 거처적거려야 때로는 짜증이 난다고 해도 해야 할 일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한 개인에게도 하기 싫어도 안 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하나의 집안과 사회와 국가를 이루며 살아가면서도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이 있다. 예컨대 세금은 좀 덜 내고 싶은 생각이 있고, 교통규칙은 좀 안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지켜야 한다. 그것을 안 지키면 국가와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서를 지키게 하는 것 가운데 법률이 있다. 안 지키면 그에 따른 벌을 주자는 뜻이다. 그런데 법을 어겨서 벌을 받기 이전에 일상생활 속에서 잘 지키면 벌이 질서를 잡기 전에 질서가 잡히도록 생각해 낸 것이 있다. 그것이 명교(名敎)이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명칭이 붙어 있는데 그것을 지키자는 것이다. 그래서 군군신신(君君臣臣)부부자자(父子子)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질서는 반드시 상하(上下)와 귀천(貴賤), 남녀(男女) 등 구별이 있어서 그에 따른 행동수칙이 있고, 그러면 사회는 질서정연하게 돌아간다.

그러나 이것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앞서 말한 대로 거처적거림이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나라에서 이를 장려하고 설득하고 교육시키면 이것저것 이해하게 되니까 명교를 지키게 된다. 그러나 나라와 사회가 이를 교육하거나 실천을 강조하는 제도적 장치가 약해지면 그만 이 귀찮은 행동수칙을 버리고 '자유'라는 말을 외치고 이 규제를 깨뜨리는 것이 마치 무슨 영웅이나 된 듯 행동한다. 그리고 철없는 사람은 이를 멋지게 보고 따라하여 사회는 건장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진다.

명교(名敎)가 무너진 시대의 자유

■ 권 중 달 (중앙대 명예 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이러한 시대가 중국 위진남북조 시대에 있었다. 한(漢)나라 때에 유교(儒敎)를 국교로 하여 이를 교육하여 군신·부자·부부·붕우 간에 지켜야 할 행동양식 등을 정하고 이를 장려하여 귀족지만 누구나 다 이를 지키려 하였다. 그런데 한왕조가 무너지고 황건적이 나타났고, 강력한 왕권은 형성되지 않자 이 자유에 대한 열망이 나타났다. 국가의 통제력이 약해진 까닭이다. 그래서 고급스럽게 '초탈'을 세속적 얽어매에서 벗어나려는 기풍이 불었다.

좋은 일기기는 하지만 이것을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게 된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남조 송(宋)의 황제 참오왕이다. 쫓겨나서 황제의 칭호도 받지 못했지만 하여간 어릴 때부터 제멋대로였다. 태자 시절에도 황제가 될 공부는 하지 않고 윗층한 장대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놀았다. 그의 생모인 진태비가 회초리를 들고 때리기도 했지만 고치질 못했다.

그러다가 황제가 되었다. 그리고는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돌아오고 저녁에 나가면 새벽에 돌아오는 기행(奇行)을 저질렀는데, 니승들만 사는 청원사에 몰래 들어가서 기르는 개를 훔쳐다가 삶아 먹지를 않나 낮에 나가 돌아다니다가 움직이는 것을 보기만 하면 개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죽이는 일도 있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자유롭게 산다.'고 했을 지도 모를 일이다.

평복을 입고 미행(微行)을 나가서 길에서 드러누워 자지를 얹나 민간인과 시비가 붙어서 욕을 먹기라도 하면 또한 이것을 즐겁게 생각하는 일까지 있었다. 한번은 태후가 선불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태후를 죽인다고 사약을 끓이라고 한 일이 있다. 그런데 태후가 죽으면 곡을 해야 된다고 하니 그것이 귀찮아서 그만 두었다. (다음호에 계속)



이러한 황제의 짓거리는 심한 것이기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도덕적 질서를 거부한 위진남북조 시대의 분위기가 탓이다. 그 가 어릴 시절에 세상을 초탈하는 것이 멋있다고 생각하게 한 그 시대의 분위기를 어린 그가 배운 때문일 것이다. 이 고사를 보면서 자꾸 요즈음 생각이 난다. 서양에서 들어온 자유사상이 좋기는 한데 그에 따라 반드시 있어야할 질제력을 갖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때로는 부모를 죽이고, 처자를 죽이며 남편을 죽이는 사람까지 나타나게 된 것은 아닐까? (다음호에 계속)

■ 역사기행

왕자(王子)의 난(亂)과 정도전(鄭道傳)

■ 향촌 권오창 (본원 저문위원)



조선조 태조 7년(서기 1398년)에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다. 이를 역사적으로 방식의 난, 무인정사라고도 한다. 정치적으로는 정도전 일파와 방원 일파의 권력 과 세력다툼이었고 왕위 쟁탈전의 측면에서 보면 이복형제간의 싸움이었다.

그때의 사정은 태조가 병석에 누워있는 처지였고 전 왕비 한(韓)씨 소생 6형제가 있었고 계비 강(康)씨 소생 2형제가 있었다. 한씨는 태조가 등극하기 1년 전에 55세로 세상을 떠났다. 아들로는 방우, 방과(정종), 방익, 방간, 방원(태종), 방연 등과 딸은 경신, 경선을 두었다. 강씨 소생은 방원, 방식 형제와 경순공주가 있었다. 왕위계승 상황을 살펴보면 조선개국 원년에 배극렴 등이 방원을 세자로 삼을 것을 주장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후에 계비 강씨의 뜻에 따라 태조는 방원을 세자로 세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정도전, 조준, 배극렴 등의 반대로 세자책빙이 배척되고 방식이 세자로 책봉되었다. 감비는 아들 방식이 세자책빙이 된 후 얼마 되지 않아하여 죽었다.

그러한 연유 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으나 태조가 계비 강씨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과 계비 강씨와 정도전 등의 사전 의견이 부합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한다. 여진족의 경우는 반드시 제일 딸자를 세자로 세우 왕 재임기간을 장기적, 안정적으로 한다고 하는 풍속도 있었다는 전례를 따랐다는 설도 있다. 장자 왕위세습이 어디까지나 원칙이었으나 큰 아들 방우는 이미 40세의 나이에 일찍이 세상을 떠난바 있었다.

방식이 세자로 책봉되자 태조를 도와 조선왕조개국에 1등공신인 방원은 내심 불만이 가득하였다. 세자책빙은 당연히 그에게 돌아올 줄 믿었으나 세자자리는 방식에게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한 연유

로 방원은 그의 심복인 하륜, 이숙번 등과 모의하여 방식 세자책빙에 가담한 정도전 등의 집권세력을 무너뜨리고 이들을 퇴출시키기로 결심하였다. 하륜이 총정감사로 부임하던 날 방원은 하륜의 집에 들렀는데 이때에 하륜으로부터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이 모의하여 한씨 아들들을 죽이려 한다는 첩보를 들었다. 방원은 지체없이 하륜의 언질에 따라 당시 안산군수였던 지략과 용맹이 뛰어난 이숙번과 긴밀히 연락하여 유사시 무장한 군사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 연락이 되도록 그의 처남 민무구에게 암암리에 명령을 내려 놓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무구가 이숙번을 불렀다. 이때에 태조의 병이 위중하여 방원 정안대군, 방간 회안대군, 방익 의안대군, 방식 의안대군 등이 근정전 서쪽 별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이었다. 그날 저녁 무렵 방원의 부인 민씨가 친정동생 민무질과 밀담을 나눈 후 하인을 시켜 궁궐에 가서 부인 민씨가 위독한 상태이니 방원 정원대군은 집으로 돌아오라는 전갈을 하였다. 그 전갈을 들른 장소에 함께 있었던 방식 의안대군이 악을 주면서 정안대군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 정안대군이 집에 와서 부인 민씨와 처남 민무질과 밀담을 나누다가 궁궐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민씨가 말했다 '죽을 일이 없다' 라고 말하고 듣지 아니하였다. 그런 연후에 정안대군은 민무구를 시켜 이숙번에게 무장을 시켜 정안대군이 지정한 장소에 대기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때에 초저녁 어두움이 내려앉을 때에 태조의 병세가 위중하여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

(다음호에 계속)

권율과 전라도 사람들 ㉘

■ 김 영 현 (광주북구정 문화관광과장)

(지나호에 이어) 1623년 안주목사로 방이사를 겸임하고, 다음해 이괄의 난 때에는 도원수장관의 휘하에서 전부대장으로 이괄의 군사를 황주와 서울 안산에서 무찔러진무공신振武功臣, 1등으로 금남군鎭南君에 봉해졌다.

천문·지리 복서·의술 등 다방면에 걸쳐서 정통하였고, 청렴하기로 이름이 높았다. 광주 경렬사에 배향되었다. 저서로 『만운집』·『금남집』·『백사북천일록』 등이 있다. 시

호는 충무忠武이다. 이들은 임란을 맞아 친척은 물론 인근 고을을 장정들과 함께 권을 막하로 들어가 병기와 군량 보급, 전투부장 등의 역할을 했다. 이치의 독산산성전투, 행주산성전투에 직접 참전하거나 적군 후원하여 임란 초전기 호남을 보전하고 서울을 수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김천일·고경명, 의병 봉기 북상 (다음호에 계속)

‘웃으면 福이 온다’

■ 毛村 權五福 (본원 편집위원)

미소(微笑)는... 영혼의 들뜬에 쏟아지는 한 줄기 빛살이다. ‘웃으면 福이 온다’는 말이 있다. 이런 말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것은 불치병을 앓던 환자가 웃음 요법으로 그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말이라고 한다.

미국에 사는 노만 카즌이라는 사람은 척추관절염이라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었다. 그는 심한 통증을 멎게 하려고 강력한 진정제를 복용했는데, 문득 이것이 죽음의 연습



처럼 생각되어 진통제 사용을 멈추었다. 그 후 노만 카즌은 ‘도저히 치료될 수 없는 병이라면 하루 하루를 좀 더 즐겁게 살아야지’ 하고 생각했다.

그는 코미디 비디오를 매일 10분 정도 보고 유희하게 웃는 습관을 갖기 시작했다. 그

別世

작곡가 권길상 씨 별세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로 시작하는 동요 ‘꽃밭에서’와 매년 5월 스승의 날에 부르는 ‘스승의 은혜’ 등을 작곡한 권길상 씨가 1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88세.

1927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올해도 꽃잎이 피었습니다(꽃잎)’, ‘달 달 무슨 달



음악부 1회 졸업생으로 1948년부터 서울 무학여중·고, 이화여중·고, 예술여고 등에서

쟁반같이 둥근 달(둥근 달)’, ‘푸른 푸른 푸른 산은 아름답구나(푸르디)’, 등 귀에 익은 동요 20여 곡과 가곡 ‘그리움’ 등을 작곡했다. 권길상 씨는 서울대 예술대

10년 넘게 교편을 잡았다. 1945년 작곡가 안병원 씨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합창단인 봉선화동요회를 만들며 동요 보급에 앞장섰다.

196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민을 떠나 남가주주한인음악가협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

한국아동음악상과 소파상, KBS동요대상, 대한민국 동요대상 등을 수상했다.